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막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주인께 돌려드려야 할 것

형제자매 여러분, 한가위 추석 명절을 지내시느라 지치고 힘들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도 푸른 가을 하늘과 풍성한 들녘을 바라보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계절은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복음에서 주인에게 돌려 주어야 할 이득을 가로채는 못된 소작인의 비유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우리 신앙의 책임과 의무를 생각하게 해 주십니다.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잘 이끌어 가면서 세상과 교회에 봉사하는 것은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소중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각자에게 그 삶을 가꾸고 일구도록 믿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평생을 살아가며 가꾸어 맺은 우리 삶의 열매를 셈하는 그 날, 그 열매를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의 삶의 주인으로서 하느님께 보여 드려야 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삶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그 삶 안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지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기억해 봅시다.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 활을 파고 탑을 세웠다.”(마태 21,33a)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의 섭리하심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책임과 의무를 맡기시기 전에 그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자비하신 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마태 21,33b) 그렇게 하느님은 우리를 신뢰하시는 것이겠지요. 어깨 너머로 감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옳은 일을 하리라 믿고 모든 것을 맡겨놓고 떠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불행히도 우리 중에 많은 이가 그렇게 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과 평화의 기회를 주시려 종들을 보내시는 하느님이지요. 반역과 배반이 반복되지만 마지막 기회로 아드님을 보내주시는 아버지의 심판은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특권으로 주어지지만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는 죽을 운명의 심판으로 주어집니다.

하느님의 섭리, 신뢰, 기다림, 심판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 의미를 확인합니다.

포도밭의 소작인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특권으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은총’이라 말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겠지요. 이 은총은 우리에게 그저 주어진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또한 삶이라는 이 은총의 선물은 언제나, 누구에게서든 하느님께서 다시 가져가실 수 있음을 압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권에는 책임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선물을 현명하게 사용하든 남용하든 결국엔 우리 자신의 책임이며, 그 책임에 따른 심판의 결과도 결국 우리 자신이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자신의 뜻대로 선물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자유의지’라 부릅니다. 결국 오늘 비유 말씀의 또 다른 제목을 말하라 한다면 ‘자유의지의 남용’이라 할 수 있겠지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청해야 할 기도는 ‘삶’이라는 주어진 은총의 선물과 특권을 남용하지 않을 지혜와 용기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귀한 은총의 선물이며, 이웃에게는 기쁨을 가져다주는 행복한 선물이 되고, 스스로에게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간직하는 보물 상자가 되기를 청하는 한 주간을 만들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망동 본당 임준기 다미아노 신부



전례

입당 전 안내

교형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27주일입니다. 의로우시고 자애로우신 주님께서서는 당신 오른손으로 가꾸신 포도밭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서는 당신 포도밭인 교회를 끊임없이 가꾸시며 심은 새싹들을 자라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결합시켜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도록 간구하며 정성되이 이 전례에 참여합시다.

입당성가 : 461번 ‘나는 주님 포도밭’

본기도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 공로와 소망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양심의 가책을 받은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감히 청하지 못하는 은혜도 내려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 이사야서 5장 1절-7절

안 내 : 이사야 예언자는 주님의 포도밭인 이스라엘 집안을 두고 재앙을 선포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묵 상 : 신앙인이란 주인, 곧 하느님으로부터 ‘삶의 밭’을 받아 풍성한 결실을 거두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소작인’에 불과합니다. 그분의 도구로 부름 받은 우리가 새로운 소작인으로서 마지막 날에 제때에 소출을 바칠 수 있는 일꾼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화답송 : ◎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라네.

제2독서 : 필리피서 4장 6절-9절

안 내 : 바오로 사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묵 상 : 늘 감사하는 마음과, 평화를 추구하며 이웃에 대한 사랑과 나눔이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 21장 33절-43절

강 론 : '주인께 돌려드려야 할 것'(1-2쪽)

예물준비성가 : 511번 '미약하온 우리 제물'

영성체성가 : 166번 '생명의 양식'

영성체 후 묵상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는 방법,
즉 하느님 나라에 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은
밭의 주인인 하느님께 '소출'을 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나에게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으로부터 재물과 재능까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밭'입니다.
그것을 나만 즐겁게 하고 나를 배불리는 데에만 사용한다면
우리 역시 하느님 나라를 빼앗길 것입니다.
삶은 그 자체를 소유함으로써가 아니라 '나눔'으로써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246번 '창파에 뜬 일엽주'

※ 공소사목 성금

이영식님

50,000원

신계남님

50,000원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5,64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림

■ ‘성경 통독 일기’ 연수(동해지구)

- 과정 안내 : 매일 성경을 읽으며 영적 일기 쓰기. 격주로 모여 강의를 듣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내면화하기.
- 연수 일정 : 격주 토요일 오후 2시-5시
10월 14일/ 10월 28일/
11월 11일/ 11월 25일/ 12월 9일/
12월 23일/ 12월 30일 - 총 8회
- 장소 : 영해 성당
- 내용 : ‘성경 통독 일기’ 연수(동해지구) (강의와 말씀 심화 프로그램)
- 강사 : 함원식 신부(영덕 주임)
- 대상 : 동해지구 신자
- 회비 : 1인 40,000원 (영적 일기 노트 비용 포함)
- 준비물 : 성경, 필기도구 등

■ 교구장배 게이트볼 대회

- 일시 : 10월 9일(월) 09:00
- 장소 : 안동 생활체육공원 게이트볼 구장

■ 여성연합회 피정

- 일시 : 10월 10일(화) ~ 11일(수)
- 장소 : 강원도 인제 다물 피정의 집, 인제 자작나무 숲
- 대상 : 본당 여성단체 간부
- 참가비 : 45,000원(1박 4식)
- 준비물 : 미사준비, 성서, 묵주, 세면도구, 잠바(저녁 추위), 편안한 신발, 모자, 필기도구

■ 못자리 신앙잔치

- 일시 : 10월 14일(토) 10:00 - 17:00
- 장소 : 안동 KBS 공개홀, 운동장
- 대상 : 초등부 주일학교 학생
- 준비물 : 주일미사 준비, 운동복, 운동화, 개인식수, 명찰(공문 참조)
- 참가비 : 1인 5,000원(유치부 포함)

■ 2017년 열린 성경 강좌 6

- 일시 : 10월 16일(월) 19:30
- 장소 : 교구청 1층 강당
- 준비물 : 신, 구약 성경
- 참가비 : 1인 2,000원
- 강사 : 함원식 신부(영덕 본당 주임)

■ 교구 말씀축제

- 일시 : 10월 22일(주일) 09:30
- 장소 : 가톨릭상지대학교 소피아관
- 내용 : 성경 암송대회, 성경 장기자랑 및 기타 작품 전시
- 참가비 : 1인 12,000원(도시락, 생수 제공 및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 문경 엠마오 기쁨 피정의 집 축복미사

- 일시 : 11월 17일(금) 11:00
- 장소 : 문경읍 지곡리 태극기마을 끝동네 (문경성당에서 5분거리)

■ 제4차 가나혼인강좌(혼인 전 교리교육)

- 일시 : 11월 18일(토) 13:00 - 18:00
- 장소 : 교구청
- 참가비 : 1인 1만원(2인 2만원)
- 대상 : 혼인을 준비 중인 남녀 (함께 참석해야 함)
- 신청 : 11월 16일(목)까지
사목국으로(858-3114~5)

■ 안동가톨릭문인회 시화전

- 일시 : 10월 21일(토) ~ 29일(주일)
- 장소 : 교구청

■ ‘한국천주교사료목록화사업’을 위한 본당 사료 수집 요청

- 목적 : 역사자료 보존 및 활용
- 내용 : 본당 및 개인이 보관하는 오래된 사진, 책, 성물 등
- 마감 : 10월 30일(월)까지
- 문의 : 안동교구 50년사 편찬위 간사
박효진 울리안나 010-8560-1654

■ 가톨릭상지대학교

2018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 수시 1차 모집 : 9월 11일(월) ~ 9월 29일(금)
- 입학문의 : 교무입학처 054)851-3021, 3023
<http://ipsi.csj.ac.kr>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이 2016년 4월 8일 (금) 로마 시각 낮 12시(한국 시각 저녁 7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소집했던 가정에 관한 두 차례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곧 2014년 제3차 임시총회와 2015년 제14차 정기총회 결과를 소개하고 발전시킨 후속 권고로서, 서론과 9개 장 32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소사목지에서는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제6장
사목적 전망

오늘날 가정에 관한 복음 선포

201. “그래서 교회 전체의 선교적 회심이 요청됩니다. 단순히 이론적이고 사람들의 실제 문제와 무관한 선포에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 사목은 “가정에 대한 복음이 인간의 가장 깊은 갈망, 곧 인간 존엄에 대한 응답이며, 상호성과 친교와 출산을 통한 온전한 성취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야 합니다. 선포는 단순히 어떤 규범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세속화된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요구에 응답하는 가치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어 시노드 교부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한 시장 논리를 지나치게 중시하는 등으로 진정한 가정생활을 방해하고 차별과 빈곤과 소외와 폭력을 낳는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조건들을 숨김없이 고발하는 복음화의 필요성도 강조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조직들과 대화를 나누고 협력하며, 문화와 사회 정치 분야에서 활동하는 그리스도인 평신도들을 격려하고 지지하여야 합니다.”

202. “본당은 가정 사목에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본당은 여러 가정들이 모여 이루어진 하나의 가정이며 작은 소공동체들과 교회 운동과 협회들이 조화를 이루며 기여를 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가정을 위한 사목과 더불어, “사제와 부제, 남녀 수도자와 교리교사와 다른 사목 봉사자들을 위한 더욱 적절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전 세계로 보내진 자문에 대한 답변들을 통해, 흔히 성품 직무자들은 오늘날 가정이 직면하고 있는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는 것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혼인한 사제가 있는 동방 교회의 오랜 전통의 경험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3. 신학생들은 약혼과 혼인에 관하여 단순히 교리와 관련된 교육만이 아니라 더욱 폭넓은 학제 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받는 교육이 언제나 그들 자신의 심리적 정서적 배경과 경험을 표현할 수 있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신학생은 부모의 부재와 정서 불안으로 상처 받은 가정에서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양성 과정은 그들이 성숙하여 앞으로 수행하게 될 교역에 필요한 심리적 균형을 이루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가정의 유대는 신학생들이 바른 자존감을 강화하는 데에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의 교육 과정과 사제 생활에 가정이 함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가정은 그들이 현실에 자리를 잘 잡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정생활의 구체적 현실과 더 많이 접촉할 수 있는 본당 생활의 경험을 신학교 기간에 하게 되면 신학생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사실, 앞으로 그들이 사목 생활을 할 때 무엇보다도 가정들을 폭넓게 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제 양성에서 평신도와 가정, 특히 여성의 존재는 교회 안에서 다양하고 상호 보완적인 여러 소명들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줍니다.”

204. 시노드 자문에 대한 답변은 또한 가정 사목을 위한 평신도 지도자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성은 심리교육자, 가정의, 일반의, 사회복지사, 청소년과 가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이와 더불어 심리학, 사회학, 성과학, 그리고 상담의 도움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 특히 실질적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은 가정의 현실적 상황과 구체적 관심사를 바탕으로 한 사목 계획의 실천에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사목 일꾼들을 위해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과 과정은 사목 일꾼들이 혼인 준비 여정을 더 커다란 역동적 교회 생활에 포함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사목적 준비를 잘하는 것은 “가정 폭력과 성적 학대와 같은 경우에 발생하는 특히 위급한 상황의 관점에서”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영성 지도의 근본적 가치, 교회와 고해성사의 소중한 영적 부요를 결코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하는 것입니다.

혼인 준비 여정에 있는 약혼한 이들을 이끌기

205. 시노드 교부들은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젊은이들이 혼인의 가치와 부요를 발견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젊은이들은 온전한 결합의 매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온전한 결합은 인간 존재의 사회적 측면을 고양하고 완성시키며, 성에 가장 심오한 의미를 부여하고, 또한 자녀들의 선을 증진시키고 그들의 성숙과 교육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206. “오늘날 가정이 당면한 도전들과 복잡한 사회 현실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모두 힘을 모아 약혼한 이들의 혼인 준비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합니다. 덕의 중요성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정결은 인간들 사이의 사랑이 참되게 자라는 데에 매우 소중한 조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노드 교부들은 공동체 전체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가정의 증언을 도모할 것에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포함한 여러 성사들과 혼인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그리스도교 입문 여정에서 혼인 준비의 근거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교회 생활 참여의 진정한 체험이 되고 가정생활의 다양한 측면들을 깊이 다루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혼인 직전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도 강조되었습니다.”

- 다음에 계속 -



아들의 개

박월수 아네스
(안동가톨릭문인회)

아들이 다녀갔다. 아들의 개도 다녀갔다. 잠깐 동안 집안이 별집이 되었다.

잔정이 많은 아들은 유난히 개를 좋아한다. 우리가 귀농을 원했을 때 아들은 마당 있는 집에서 개를 키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찬성했다. 약속대로 작고 귀여운 개 두 마리를 키우게 해 주었다. 하지만 아들은 우리 몰래 시베리안 허스키라는 덩치 큰 녀석을 온라인에서 분양받아 우릴 기겁시켰다. 시간이 흘러 작은 개 하나는 새끼를 낳다 죽었고 허스키는 다른 이에게 보냈다. 남은 개 하나는 자주 집을 나가는 통에 맘 아프지만 목줄을 묶어두었다.

아들이 자라서 군대에 갈 무렵 다시 말티즈 하나를 분양받아 왔다. 아들의 빈 자리를 채워줄 무언가가 필요했으므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집안에서 키우는 개는 성가신 일이 참 많았다. 수시로 씻기고 털을 깎이고 놀아주어야 했다. 하지만 성가신 것보다 위로 받을 일은 더 많았으므로 남편도 잘 참아주었다. 아들이 없는 쓸쓸함은 컸지만 말티즈의 재롱이 있어 잘 견뎠다.

아들이 전역을 했다. 복학을 한 아들은 또 사고를 쳤다. 기숙사 신청 하는 걸 놓쳤다고 하기에 학교 앞 원룸을 얻어주었더니 덜렁 강아지 하나를 들여놓았다. 보스턴 테리어라는 이 녀석은 우리가 키우는 암전한 말티즈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덩치는 날마다 자라고 조금만 제 마음에 차지 않으면 킁킁거리는 걸 멈추지 않는다. 아무리 혼련을 시켜도 대소변 가리기도 되지 않는다. 아들은 이 녀석 뒤치다꺼리 하느라 허구한 날 종종걸음이다. 게다가 힘들게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은 강아지 용품 사는 일에 마구 밀어 넣는 눈치다. 우리가 녀석의 흥이라도 블라치면 마치 제 아이나 동생이라도 되는 것처럼 두둔하느라 바쁘다.

어떻든 말썽꾸러기 그 녀석과 한 집에서 살지 않는 것만으로 어찌 참아보려고 했다. 그런데 수시로 집에 오던 아들이 개와 동거를 하면서 차츰 뜬금없이 시작했다. 집에 다니러 올 때면 자신의 개를 구박하는 우리가 은근히 신경 쓰였던 모양이었다. 어떤 땐 생활비를 축내면서까지 애견 카페에다 맡기고 왔다. 그도 잠시 눈치 없는 녀석이 다른 개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걸 알고는 포기한 것 같았다. 급기야 아들이 보고 싶은 우리는 못마땅하지만 아들의 개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문제는 또 있었다. 큰 덩치에 제 맘대로 하길 좋아하는 개가 있으니 버스를 타고 다닐 수는 없다고 했다. 하는 수 없이 아들과 녀석을 모시고 와서 다시 모셔다 드리기로 했다. 왕복 두 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오가는 동안 녀석은 답답하다며 아이처럼 보채고 수시로 방귀를 끼어 실내 공기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피부병이 생겨 목에 끼워 놓은 캡을 벽벽거리며 긁어서 운전대를 잡은 내 정신마저 사납게 했다.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성견에 가까워진 녀석은 거실 소파며 탁자 위를 뽕뽕 날아다니고 아무데나 대소변을 싸고 돌아다녀서 우리의 신경을 어지럽혔다. 또한 이미 터줏대감이 된 말티즈와 손님으로 온 아들의 개는 수시로 부딪쳤다. 주인의 위세를 등에 업고 맹렬하게 짖어대는 개와 그러거나 말거나 기죽지 않고 덤비는 녀석 사이에서 우리는 식탁을 앞에 놓고도 보초를 서야했다. 아들과의 편안한 식사는 물 건너가고 그야말로 집안이 전쟁터였다.

주말 이틀을 묵어가려고 왔던 아들과 아들의 개를 단 하루 만에 제 집으로 돌려보냈다. 녀석이 밟고 다녔던 모든 곳을 청소했고 녀석의 냄새가 뱀 방석이며 쿠션은 모두 빨랐다. 이제 우리는 원래의 평온을 찾은 듯하다. 그런데 열심히 키운 아들을 개에게 빼앗기고 만 것 같은 이 허전함은 어떻게 해야 할까!